



S-5

Clinical Tips for Removable Type Implant Prosthesis



이 성 복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

- 1984년 경희치대 졸업
 경희치대 보철과 수련의
 일본 오우대학 박사과정 학점교류 유학
 1993년 경희치대 박사학위 취득
 미국 하버드대학 보철과 및 임프란트과 교환교수
 현재 경희치대 보철학교실 부교수, 국소의치학 담당

Overdenture와 함께 쓰이는 implant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의치의 유지, 안정, 지지를 강화시키는 추천할만한 방법이다. overdenture를 implant에 부착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보고되고 있지만 2개의 기본적 설계원칙이 현재에도 논쟁 중에 있다.

문제는 overdenture를 지지하는 측면에서 가해지는 힘에 보다 잘 견디기 위해 implant를 연결 고정해야 하는가, 연결없이 implant가 단독으로 그 힘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implant 수명에 overdenture 기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몇몇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결과는 약간 다르게 나왔다. 이 문제를 달리 말하자면,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정말로 기능 중에 implant가 받는 하중을 감소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유지면에서의 관점도 역시 논쟁거리 중에 한가지이다. 어떤 이들은 implant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screw loosening이나 부품의 파절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의치 하방의 bar가 의치를 약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의치 파절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양쪽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다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역시, implant overdenture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유지할 것인가의 결정은 치료의 근거에 대한 과학적 뒷받침 없이 임상가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overdenture 술식을 위한 가장 좋은 implant의 적용을 결정하기 위한 부가적인 임상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Overdenture 유지에 대한 magnet의 사용은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왔다. magnet 기술에 있어서의 새로운 혁신은 그 사용 면에서 관심을 새롭게 갖도록 하는 자극을 주

었고, 본 교실에서도 비교적 임상적 결과가 기대치만큼 일정하게 나오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여 왔다.

새로운 형태와 종류의 magnet에 대한 보고가 비교적 문헌상에 많이 나오지만 그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follow-up 보고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Implant 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는 계획된 수복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몇 개의 implant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무치악부 한 개를 수복하기 위해 한 개의 implant를 식립한 경우의 예후에 대한 궁금증이 이 물음에도 포함되어 있다. 무치악 환자에게 고정성 implant 지지 보철물을 수복해 주기 위해 필요한 implant 수에 대해 보고되어 있는 문헌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극단적으로 4개의 implant로서 완전무치악 고정성 수복물을 지지할 수 있는 예로부터, 각각의 상실치 숫자만큼의 implant를 개별적으로 식립해야 한다는 또 다른 극단적인 예까지 나와있다. 마찬가지로, 이에 답변할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있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주어진 임상적 상황에서 필요한 implant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다른 각각의 설계원칙에 맞추어 수복된 보철물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용 절감면에서의 소수 implant의 가치는 많은 환자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implant의 수가 계획된 보철물을 지지하기에 적당한 수보다 많다면,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implant의 실패가 최종 보철물의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추가로 implant를 식립해야 할 경우의 수술의 필요성 및 시간소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